



空士總同窓會報

發行人：柳常新

編輯人：尹錫文

- 1期士官 卒業/任官 50週年 記念 特輯 -

(住所) : 서울特別市 銅雀區 大方洞 358-1番地 (우) 156-080, (電話) : 02-823-1091, (FAX) : 02-823-1092, E-Mail : airfa@netsgo.com



이억수
(참모총장)

半世紀前 하늘을 연先輩님들을讚揚하며

尊敬하는 1期士官 先輩님들의 졸업 및 입관 50주년을 공군 전장병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약동하는 새봄과 함께 지난 3월, 49期士官 후배들이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달았을 때, 사랑스런 눈으로 후배들을 바라보며 지난날을 회고하시는 先輩님들의 感懷가 어떠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피끓는 젊은이의 공사 1기생, 희망의 젓가슴에 물결 춤추며 김포의 하늘에 굳게 자라난, 이내 갈길 저기 하늘, 날이 새면 날으리라...”

1949년 6월, 하늘에 대한 憤慨와 넘치는 氣概로 흥안의 젊은이 97명이 부른 期生歌가 들리지 않습니까?

당시 先輩님들께서는 잠차 항공력에 대한 慧眼을 가지고 있었으며, 역경에 도전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開拓者 정신을 가진 先驅者이셨습니다.

無에서 有를 창조하려는 꿈과 熱望은 6·25 전쟁으로 인하여 더 많은 인내와 氣力が 요구되었지만, 先輩님들의 가시는 길에 그 어떤 試鍊도 걸림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951년 8월 진해. 새 시대의 주인공 83명이 드디어 대지를 박차고 솟아올라, 蒼空을 비행하는 海동청 보라매가 되었습니다.

1期士官 先輩님들의 그때의 感激와 榮光을 지금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젊음을 하늘에 바치고, 평생을 공군을 위해 사셨던 1期士官 先輩님!

돌이켜 보면, 지금 우리가 국가의 正統性을 유지하고, 自由民主主義를 향유하고 있는 것은 先輩님들께서 6·25전쟁에서 生死의 境界를 무수히 넘나들면서도 불꽃 같은 투혼을 발휘하여 死국의 하늘을 守護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공군이 21세기 첨단과학기술의 막강 공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先輩님들께서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시어 공군의 獨自의인 作戰力을 확보하고, 분야별 精銳 專門要員을 양성하시는 등, 공군의 現代化를 도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國家保衛와 공군 발전의 뒤에는 先輩님들의 高貴한 피와 汗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 후배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尊敬하는 1期士官 先輩님!
이제 저희들은 50년 전 先輩님들께서 새로운 시대를 開拓하여 공군의 발전을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그때의 榮光을 재현하는 새로운 飛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先輩님들의 爲國獻身의 정신을 계승하고, 훌륭하신 偉業을 발전시켜, '새 千年 先進精銳空軍'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략형 공군력을 건설하고, 나아가 航空宇宙軍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쟁을 넘어 平和로, 분단을 넘어 統一로 향하는 민족화합 대행진을 튼튼한 安保로써 뒷받침하겠습니다.

후배들의 든든한 後接者이신 1期士官 先輩님!
전역 후에도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적 위치에서 國家와 母軍發展을 위해 旺盛하게 활동해 오신 先輩님들을 저희들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한 마음의 故鄣 空軍과 靈魂의 基地 공군사관 학교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聲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신 先輩님들의 卒業 및 任官 50週年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더욱 健康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幸福이 가득하기를 祝願합니다.

2001년 4월

空軍參謀總長

空軍大將 李億秀 謹拜



유상신
(총동창회장)

戰爭으로 인하여 祖國이 累卵의 危機에 處해 있을 때 목숨을 바쳐 自由民主國家를 守護하고 우리나라의 指導層 人士로서 人生의 金子塔을 이룩하신 先輩님들에게 심심한 敬意를 표하며, 任官 50週年을 맞이하는 先輩님들께 진심으로 祝頌를 드립니다.

우리 空軍士官學校의 歷史를 돌이켜 보면, 政府는 大韓民國 建國 後 國土防衛의 緊요성을 인식하여 領空 守護의 主役을 담당할 空軍을 創軍하였으며, 空軍의 核心人力을 양성하기 위하여 空軍士官學校를 創設하였던 것입니다. 學校는 6·25戰爭으로 인하여 여러 곳으로 移轉해야 했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教育任務를 충실히 수행하여 50개 星霜 前부터 領空守護의 役軍을 배출해 왔습니다. 空軍士官學校는 祖國의 領空을 守護하는 戰鬥操縱士를 포함하여 空軍의 核心幹部를 배출하는 주요 教育機關이며, 우리의 空軍을 世界 先進國 水準으로 發展시킨 產室이기도 합니다.

建國 初期의 不安定한 社會와 戰爭으로 인한 廢墟상태로부터 出發하여 航空宇宙분야에서 世界 頂上水準에 이르기까지 發展시킨 第1期 先輩님들의 業績을 敬畏하는 바입니다. 祖國의 하늘은 내가 지킨다는 愛國表情과 奉公의 精神, 難局을 克服하는 睿智, 母校와 後輩를 사랑하고 指導하는 愛着, 未來를 豫測하고 對備하는 先見之明 등 先輩님들의 발자취는 空軍士官學校 卒業生은 물론이거니와 空軍制服을 體験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온 國民들에게 깊은 感銘으로 남아 있습니다.

先輩님들께서는 戰爭의 砲火 속에서 生命을 바쳐 祖國의 하늘 지키셨고, 戰後 荊棘의 길을 슬기롭게 克服하고 오늘의 空軍이 있기까지 發展시키셨으며, 社會에 進出하신 후 元老人士로서 社會의 指導者의 役割을 성실히 遂行하셨습니다. 이러한 先輩님들의 赫赫하신 貢獻으로 인하여 空軍士官學校의 名譽는 만천하에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난 50년에 걸친 先輩님들의 業績과 앞으로의 活動은 모든 星武人の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社會의 發展에 많이 寄與해 주시고 後進들에게 좋은 龜鑑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任官 50週年을 맞이하신 先輩님들과 先輩님들의 家庭에 健康과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祈願합니다. 또한 空軍士官學校의 무궁한 發展과 總同窓會 會員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健康과 많은 發展이 있으시기를 祈願합니다.

2001年 3月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
會長 柳常新 謹拜



임관 50주년을 맞으며 - 보내며



김영환
(공사기 회장)

任官 50週年을 맞이하는 우리들 空士 第1期生은 1949年 6月 10日 陸軍 航空士官學校 士官候補生으로 入校하여 1951年 8月 5日 任官하였으며, 祖國守護와 蒼空을 憧憬하여 하늘을 날고자 하는 抱負와 꿈을 품고 2年餘 어렵고 힘든 逆境 속에서, 그리고 韓戰 國戰이란 逆境 속에서 꾸준히 닦아온 心身兩面의 教育訓練을 修了하고 任官의 榮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任官에 際하여 空軍士官學校 第1期生 出身 將校라는 獨特한 呼稱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賦課되는 國家와 空軍에 對한

元來 우리들이 생각하였던 것은 第1期生 自體의 行事로 단출하게 그날을 記念코자 하였던 巴總同窓會에서 指示한 趣旨가 意味慎重한 바 그 意義를 알고 이어갈 各期의 任官 50週年 記念 行事를 每年 實施함으로써 那날을 期하여 任官한 後 50週年을 지내온 70餘歲의 老兵의 몸이 지나 마 나머지 餘生을 空軍과 母校의 發展을 爲하여 貢獻하겠다고 새로이 다짐하고 이를 實踐하여야 함을 決心하는, 뜻깊은 動機가 된다고 確信하는 뜻에서 總同窓會의 趣旨에 全的으로 同參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任官으로부터 今일에 이르기까지 母校에서 修鍊된 心身을 바쳐 各者는 賦與된 任務에 忠誠을 다하였고 오늘의 우리 空軍 育成 發展에 盡力하였다고 여기고 있으며, 特히 14代, 15代 參謀總長을 歷任한 同期들이 空軍 發展에 더욱 큰 貢獻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豫編 後에도 社會 各處에서 職責을 맡고 奉仕함으로써 國家 榮榮에 寄與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國家에 忠誠하고 空軍 發展育成에 盡力하여 貢獻할 수 있었다는 榮耀를

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甚深한 感謝를 드립니다.

한편 同期中에서 哀惜하게 도

名聲 높은 航空 指揮官 또는 航空 戰略 戰術家로서 呼稱될 만한 人物이 나온 것 같지 않고,

둘째, 一流 技術者가 된다는 面에서 航空 工學에 關한 碩學도 著書著者也 없었으며,

셋째, 一流 紳士로서 傑出한 模範의 紳士가 譽論된 바도 없으니, 마땅히 自責과 더불어 諸責을 當하여야 될 것입니다. 多幸



1949년 6월 10일

1기 사관생도 입교 당시의 김포 육군항공사관학교의 모습

戰爭中 空中에서 또는 業務遂行中 殉國做華한 〇〇名의 英靈이 우리들을 加護하여 주고 있었다고 믿으며, 그들의 冥福을 비는 바입니다.

히 우리의 後進들 中에 航空 戰略을 研究한 著名한 人士도 있고 航空 工學을 爲始한 各部門의 碩學들이 多數 排出되어 있음은 매우 반갑고 든든히 여겨지는 바, 教育 目標가 恒久히 在任하며 空軍士官學校 出身 將校의 名譽가 保存되기를 간절히 渴望하는 바 입니다.

現今의 우리 空軍은 國家安保의 尖兵으로서 領空守護에 萬事 戰鬪 爲主의 戰備態勢를 갖추고 任務遂行을 爲하여 盡力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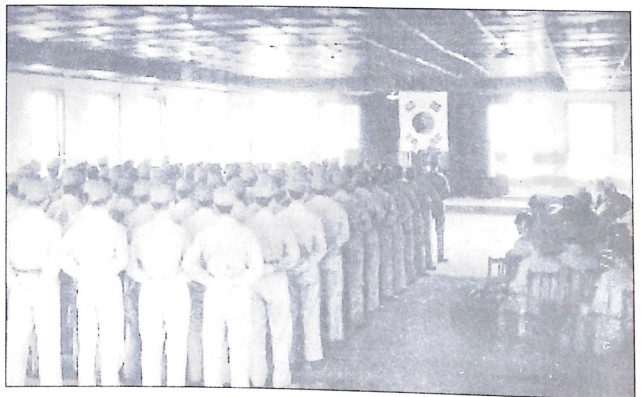
- 임관 후 50주년을 지내온 70여 세의 노병이지만 -

責任과 期待는 莫重하고 無限이 있음을 切實하게 느끼고 새로운 覺悟를 하는 時點이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今般 空士總同窓會에서 任官 50週年을 記念하는 行事를 今年에 始作하는 第1期生 任官 記念부터 主管하여 士官學校의 後援下에 每年 開催토록 決定한 데 對하여 우리들은 그 뜻에 同參하기로 하고 總同窓會와 士官學校에게 甚深한 感謝를 드립니다.

갖게 된 根源은 先 母校에서 諸 教官任들께서 軍의 干城이 될 基幹將校를 育成코자 애쓰신 熱誠어린 訓導의 德分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軍 服務 期間中에서는 여러 上司任의 指導鞭撻과 愛護, 그리고 周邊 各界各層에서 積極 後援하여 주신 여러분과 戰友 및 後輩들의 踴躍과 支援, 特히 우리들이 指揮官, 參謀로서 任務를 忠實히 完遂토록 心身을 바쳐서 奮闘·努力하여 주신 部下 將兵의 勞苦를 잊을 수 없으며 衷心

한편 지나간 발자취를 回顧할 때 國家가 우리들에게 賦課한 使命과 責任, 그리고 期待에 萬全



1949년 6월 10일 입교식 모습

을 達成하였다고 自信 못하는 바 數多함을 깊이 反省하고 있으며 後進들이 이와 같은 前轍을 밟지 않도록 當付하면서 다음을 言及 코자 합니다.

우리들이 入校當時 金정렬 校長께서 提示하신 教育目標를 想起할 때 이를 이룩한 人物이 排出되지 못하였음을 매우 遺憾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即, 一流 空中 指揮官이 되라.

一流 技術者가 되라.

一流 紳士가 되라.

첫째, 一流 空中 指揮官다은

으며, 나아가서 새천년 精銳 空軍 育成發展에도 獻身의 努力을 傾注하고 있는 此際, 우리들도 任官 50週年을 맞는 오늘의 老兵 이기는 하나 微力이나마 空軍과 母校의 發展을 爲하여 貢獻코자 하는 決心과 이를 實行하겠다는 決意를 굳게 다짐하면서 우리 空軍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하는 "하늘로 우주로"를 全同門과 같이 하늘 높이 우렁차게 呼唱코자 합니다.

校長統率方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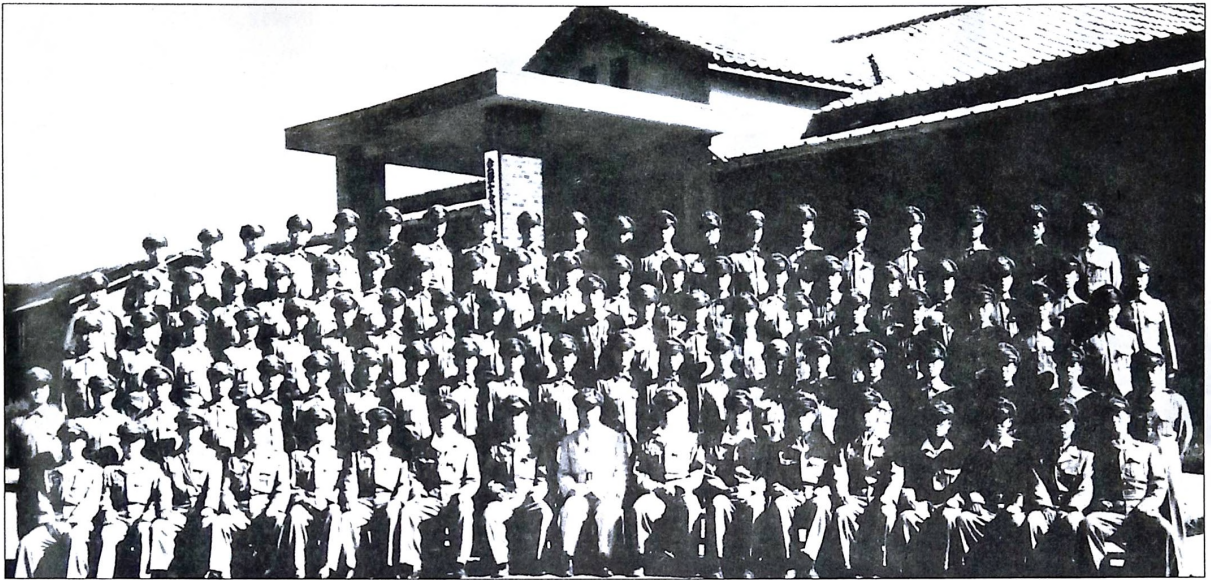
<교훈과 같았음>

一流空中指揮官되라

一流技術者되라

一流紳士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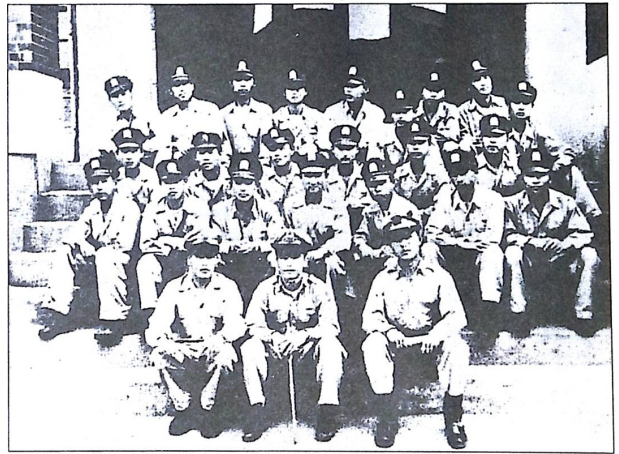
<김포시절의 사진>



▲ 공군사관학교 간부 및 제1기 사관후보생들(김포)



▲ 陸軍航空士官學校 時節 學校玄關에서(金浦, 1949. 6. 24.)
<입교 2주 지난 날. 第1中隊 第2區隊>



▲ 第2中隊 第1區隊

空 士 十 訓

- 一. 容儀端正하라
- 二. 清廉潔白하라
- 三. 誠心服從하라
- 四. 責任完遂하라
- 五. 信義一貫하라
- 六. 公平無私하라
- 七. 沈着果敢하라
- 八. 信賞必罰하라
- 九. 率先垂範하라
- 十. 恩威兼備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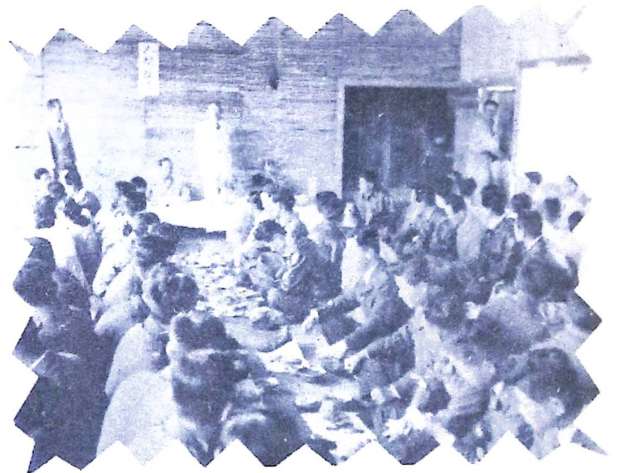
(4) 2001年 4月 17日(火)



◀ 城南中學校 校庭
<1950. 9. 28. 수도 서울이 탈환되자
공군사관학교는 성남중학교로 이동하였다.>



▲ 생도 내무반



▲ 入校 二週年記念會食 校長 崔用德 將軍을 모시고(泗川)



▲ 야영훈련 중인 사관생도



▲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공군사관학교 진해로 이동

공군사관학교는 전쟁이 발발하자 공사부대를 편성, 각 기지에서 전투에 임하였으며, 8월에는 진해에 집결, 교육을 시작하였다.



▲ 진해 사관학교 정문



▲ 최초의 공사교훈



▲ 1기 사관생도의 열병식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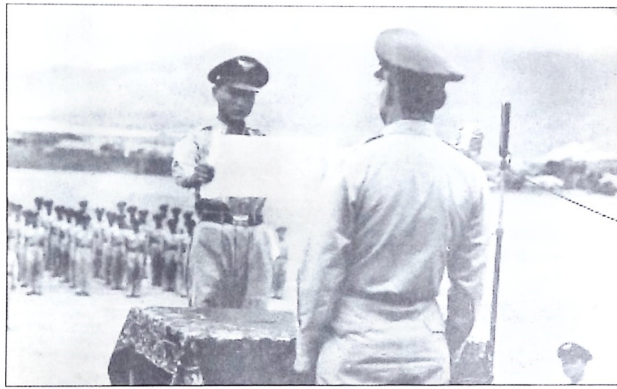
진해 공군사관학교 전경



— 졸업 및 임관(1951년 8월 5일) —



제1기 사관 졸업식(1951. 8. 5.)



아버지 같은 그분 최 용 덕 장군

반세기가 흘러 내 나이 고회가 지난 지금 훈훈한 정과 사람이 담긴 흘러간 이야기 한 토막을 더듬어 몇 자 담아보기를 한다. 때는 6·25동란 중 휴전회담을 진행하면서 지상전선에서는 피아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한치의 방, 고지 하나라도 더 점령하려고 혈전을 거듭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시를 받으라는 것이다. 지정된 항공기는 T-6C형 107호기이다. T-6C형을 소개하면 6·25동란 전에 공군전력 강화를 위해 전 국민에 호소하여 정성 어린 헌납금으로 1950년 3월 "캐나다"에서 10대 구입하여 5월 14일 여의도 기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고 "건국기"로 명명식을 성대히

"내가 남의 나라 군인으로 있을 때, 나는 내 나라 군인으로 내 나라 군복을 입고 내 나라 비행기를 조종해 보는 것이 가장 바라는 소원이었다."

1953년 6월 중순, 나는 제1훈련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던 사천기지(K-4)에서 비행교관(T-6)으로 후배 2기 사관생도 1차반(J class)의 3명(전·김·김생도)을 담당하여 비행훈련 과정도 중간쯤 진행되고 있었다. 6월 13일 아침, 나는 오후 비행훈련편대 교관이었으나 비행교관이 부족하여 훈련을 못한 조종학생이 있으면 비행훈련을 시켜줄 생각으로 Line 비행 대기실(피스트)에 들렀다. 아침 단사령부 작전처에서 공군본부(대구)로 연락 비행갈 비행교관 1명을 작전처에 보내라는 연락이 왔다. 비행교관이 부족했으나 연락비행 가기를 모두 싫어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담당할 조종학생에게는 1분 1초라도 더 훈련시켜 조종 기술을 더 가르치고자 하는 열의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오후반인 내가 지명되어 작전처에 출두했더니 T-6를 공군본부가 있는 대구 동명비행장(K-37)에 가서 참모총장실의 지

거행한 항공기이다. 태극마크도 선명한 107호기를 조종하여 K-37에 도착하여 본부 비행반 사무실에서 참모총장실 전속부관에게 도착 보고를 했다. 전속부관은 동기생 손경욱 중위였기 때문에 쉽게 연락되었다. 손중위는 "참모총장님(최용덕 장군)께서 서울에 긴급 회의가 있어 가신다면서 준비하고 대기하라."는 것이다. 1시간쯤 지나서 총장님께서 도착하셨기에 인사드렸더니 총장님께서 "부관 손중위로부터 동기생 김중위임을 보고 받았다."고 하시면서 답례하신다. 부관 손중위로부터 손가방을 받은 손중장님은 포장된 조그마한 물건을 꺼내 풀으면서 "여기는 햇빛이 따가우니 비행기 날개 밑으로 가자." 하시고 앞서가신다. 그늘에 앉으면서 "점심때가 됐는데 조종사가 굶고 조종할 수 없지." 하시면서 할복 몇 개와 중국호떡 몇 개를 꺼내면서 먹으라 하신다. 나는 사양했더니 "내가 있

어 사양하는가" 하시면서 자리를 피해 본부 비행반 사무실로 가신다. 부관 손중위가 하는 말이 "오늘 출장 가실 것을 아시고 아침에 사모님께 부탁하여 준비하신 것이니 열려 말고 먹으라."는 것이다. 나는 호떡 한 개를 집어먹으면서 "이렇게 자상하게 부하의 식사가 지 열려하시며 사랑하시는 총장님은 꼭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푸는 것과 다를없는 따뜻한 고마운 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고", 오늘 총장님을 모시게 됨을 정말로 나의 일생에 큰 영광임을 자부하였다.

먹는 김에 몇 개 더 먹고 비행기에 탑승하는데 부관 손중위가 "이제부터 김중위가 총장님을 모시니까 자네가 전속부관이야, 총장님을 잘 모시고 다녀와."하는 말을 듣는 순간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생겼다.

좌석에 앉아 벨트를 매는데 총장님께서 나에게 "이착륙 조작은 김중위가 하고, 수평비행은 내가 한다."라고 하신다.

수신호의 약속 동작을 정하고 서울로 향해 이륙했다.

서울로 방향을 정하고 수신호 후 조종간에서 손을 놓았다. 총장님의 조종 기술은 오랫동안 조종할 하지 않은 기술이 아니다. 총장님이 수평비행을 하시는 동안 내 머리를 스쳐 가는 것이 있었다. 김포 공군사관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때 우리들 1기생에게 정신훈화를 하신 말씀 중 "내가 남의 나라 군인으로 있을 때, 나는 내 나라 군인으로 내 나라 군복을 입고 내 나라 비행기를 조종해 보는 것이 가장 바라는 소원이었다."는 말씀이 생각난다.

지금도 T-6이지만 대한민국 공군의 상징인 태극마크도 선명한 항공기를 조종하여 서울로 향하고 계신 총장님은 가장 바라시던 소망이 이루어지셨다는 것을 볼 때 나는 숙연해짐을 느꼈다. 기체의 동요도 없이 비행을 잘 하시고 관악산을 통과하면서 나는 조종간을 넘겨받고 여의도 비행장(K-16)에 착륙하고 계류장에 주차(Parking)하니 서



김 문 학(공사1기)

때문이라. 한강 인도교가 폭파된 상태로 있는 것을 보면서 시내에 들어와 서울역, 남대문을 지나면서 밖을 보니 시내에는 많은 사람이 활동하고 있었다.

차는 종로에 있는 공군장교 숙소(지금의 명원관 근처)라고 쓰여진 집에 도착하였다. 그곳에는 국방부장관, 육·해군참모총장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총장님은 인사를 나누시면서 서울까지 비행기를 조종하여 온 김중위라고 소개한 후 그분들과 어디론가 같이 가셨다. 휴전회담 관계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긴급 소집하셔서 경무대(지금의 청와대)로 가신 것을 알았다.

저녁쯤 되어 장관님 일행이 숙소로 돌아오셔서 타인의 출입을 일절 금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회의를 늦게까지 하신 후 주무셨다.

다음날 아침 총장님은 숙소에 오신 장관님 일행과 같이 출타하셨다가 한참 후에 총장님 혼자서 숙소에 돌아오셔서 대구로 가자고 하신다.

K-16기지를 이륙하여 K-37기까지 참모총장님을 무사히 모셔드리고 출가분한 마음으로 K-4기지에 돌아올으로써 연락비행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이어서 주말도 없이 비오는 날이 비행훈련 없는 쉬는 날로 삼고 새벽 동이 틀 때부터 석양이 질 때까지 삼복더위와 싸우면서 한 사람의 빨간마후라이인 전투조종사를 더

울분실감이 마중 나와 있었다. 총장님 차에 동승하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영등포쪽 제방을 바라보니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아프리카의 난민촌이 무색할 정도로 천막과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이유는 민간인의 한강 도강이 통제되어 있기

양성하겠다는 신념으로 고된 비행교관 생활을 계속하였다.

나는 T-6로 장관님(VIP)을 여러분 모셨던 여러 가지 추억을 간직한 중에 최용덕 참모총장님을 모셨던 그때의 아버지와 같이 인자하신 정을 체험한 추억을 영원히 잊지 않으려 한다.



공사 50년사에 새 장이 열렸다



지난 3월 20일 충북 청주의 공군사관학교에서 제49기 졸업 및 입학식이 열렸다.
공사 1기생이 졸업 및 입학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에 200여 명의 졸업생 가운데 18명의 첫 여자 졸업생이 있어 뜻하는 바가 크다.
이날 입학한 졸업생 가운데 대통령상은 최성진(홍대 사대부고) 소위, 국무총리상은 김민석(대구 경신고) 소위가 차지했으며, 두 번째로 수여되는 공사총동창회상은 백민기(서울 삼문고) 소위가 차지했다.

대망의 비행훈련 돌입

- 최초의 여성 전투조종사가 되기 위한 21개월여의 대장정 도전
-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전투조종사가 되겠다"는 굳은 다짐



- 지난 '97년 은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안고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했던 공사 49기 여생도들이 지난 2월 8일(월), 초등비행훈련과정에 입과하여 최초의 여성 전투조종사가 되기 위한 21개월여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 이번 초등비행훈련과정 1차반에 들어간 여생도는 18명의 여생도 중 7명으로 박지연(朴智沆, 23세), 한정원(韓程媛, 23세), 박경애(朴景愛, 23세), 박지원(朴志苑, 23세), 정소윤(丁昭允, 22세), 편보라(片보라, 22세), 장세진(張世進, 23세) 생도가 그 주인공들이다.
- 이들은 앞으로 ▲ 초등비행훈련('01. 1. ~ '01. 5.) ▲ 중등비행훈련('01. 6. ~ '02. 1.) ▲ 고등비행훈련('02. 2. ~ '02. 9.)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되면, '02년 10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전투조종사로서 자랑스런 빨간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조국의 영공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F-16 세계 최초 5만시간 무사고 위업 달성



- 공군 19전비 162전투비행대대, 12년 10개월간 2천3백70만km 무사고 비행
- 지구와 달 약 27회 왕복한 거리, F-16 단일 전투비행대대로서 세계 최장 기록
- '96년 북한 귀순기(MiG-19기) 성공적 유도 · 안착

- 세계 공군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F-16 단일 운영대대 중 세계 최초 5만시간 무사고 비행의 위업이 이뤄졌다.
- 공군 19전비 162전투비행대대는 지난 '88년 3월 5일부터 2001년 2월 7일까지 12년 10개월간 단 한 건의 비행사고 없이 2천3백70만km의 비행기록을 수립했다.
- 이는 지구와 달 사이를 약 27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서, F-16 단일 전투비행대대로서 세계 최장 기록이기도 하다.
- 162전투비행대대는 지난 '87년 11월 공군 ○전비에서 참대하여 '91년 F-16 전투비행단인 19전투비행단 창단과 아울러 재배속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험이 따르는 각종 항공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완수해 음으로써 완벽한 조국 영공방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 특히 162전투비행대대는 지난 '96년 5월 23일 역사적인 북한 귀순기(MiG-19기) 유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했으며, 추후의 빈틈없이 영공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한국 공군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 또한 지난 '87년 참대 이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최우수 대대(대통령 표창) 3회 수상, Top Gun 3명 및 최우수 조종사(Best Pilot) 2명 배출의 기업을 토하기도 했다.
- 162전투비행대대는 전시 적 지상 목표물에 대한 정밀 유도 타격이 가능하며, 평시 각종 작전 수행과 더불어 실무장 공격 시범식 참가, 국군의 날,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등 주요 행사시 축하비행(특수 기동)을 통해 공군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다.
- 162전투비행대대 박태환 중령(대대장, 공사 31기)은 "금일 달성한 세계 최초 F-16 5만시간 무사고 비행의 위업은 대대 조종사들은 물론 탑당 정비사와 무장사가 평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작전에 임함으로써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여 본연의 조국 영공방위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詩

정 직

정 해 영(공사1기)

청기와는 푸르지만
희다 하고
의사당은 회지만
검다 한들
하늘을 넘나드는 친구를
머구름의 조화(造化)로
그 누가 알아나 보리요

정직한 대자연의 서사시와
뜻은 본 고난의 역사에도
눈 먼 카멜레온들의 광대놀이

여기 위업을 무릎쓰고
소년과 맺은 약속

지키다가 체포된
도산 안창호 선생
"정직한 사람"이라
불러주기를 선호한
조지 워싱턴 대통령
위독하던 영국 병을
공약 대로 고쳐 놓은 대처 수상
종신제 총장 이사장 자리를
일찍 비운 정의숙 자원봉사 교사
만물을 형서와 가지로
꾸준히 관조(觀察)해 보이는
정직한 영(靈)들의 비상(飛翔)
을 본다

IT시대에 중소 제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주)일야 하이텍 사장



김도식(공사8기)

■ 현 상

우리는 바야흐로 IT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인 절반이 이동전화를 보유하여 OECD 29개국 중에서 미국과 일본, 프랑스를 제치고 7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이용자 수도 급증해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고 한다. 개인 컴퓨터 보급률은 5.5명당 1명꼴로 OECD 가입국 중 21위에 이르고, 인터넷은 100명 중 23.2명이 이용해 영국과 일본을 앞질렀다(2000. 12. 11. 조선일보). 그 성과로 브로드밴드(대용량, 고속) 인터넷망이 400만 가구에 깔렸다고 하니 과연 눈에 띄는 숫자다. 외관상의 공급 면의 성과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실제 경제를 크게 떠받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보급된 고속 인터넷망이 어떻게 활용해서 지적(知的) 부가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이는 자칫 아이들이 포르노를 본다든지, 건전치 못한 채팅에 열중한다든지, 게임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오히려 크지 않을까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방안은 여기서 논외로 한다.

둘째는, IT산업의 제조 능력은 어떠한가?

제조 능력이야말로 참다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기능, 기법의 요체가 아닌가. 우선 한국이 자랑하는 반도체를 보자.

'99년도 260억\$를 수출했는데 수입은 200억\$로서 77%를 수입에 의존해야 했다.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 와이퍼는 100% 수입해야 한다. 초미세선의 세척용 순수(純水)와 조립용 장비인 스탬퍼 등 거의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소재 제조국에서 수출을 중단한다면 우리의 반도체 생산은 전면 중단될 상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다음은 이동전화를 보자. 핵심인 디바이스(DEVICE)와 부품(PARTS)을 외국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수정 발진자(水晶 發振子, 수신발진용)는 일본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다. 1/10m/m 단위의 미소 콘덴서, 정보표시의 소모니터 화면에 사용되는 액정(液晶), 액정패널(PANEL)의 유리, 액정을 만드는 기계도 모두 수입해야만 한다. 이것은 '99년도 전체 매출액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다음은 컴퓨터를 보자. 컴퓨터 하드디스크(HARD

DISK)를 구성하는 초정밀 소형 모터(MOTOR)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 그 외에도 IT 장비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리튬전지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사용상의 양적 팽창보다는 수요를 창출하는 제조업이 뒷받침되어야만 내실있는 IT산업의 환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단순한 사용상의 양적 팽창은 결국 수입증가를 유발하고 창조적 노력을 퇴화시키며 안이하게 빠지기 쉽게 한다고 볼 수 있다.

■ 발전을 위한 제언

IT산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중소기업의 성장 전략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정부·대기업·연구소·중소제조업이 하나의 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국산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다. 설사 개발했다고 해도 대기업에서는 만약의 경우 실무자의 책임문제 때문에 선뜻 사용해 주지 않는다.

둘째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정부, 국회, 학계, 언론 등 지도층이 말로만 말고 행동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예가 있다.

어느 날 회사에 근무하는 계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반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서 너희 아버지는 무엇 하느냐고 물기에 공장에서 야간근무하고 지금 주무신다고 했더니 얼마 후에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사표를 제출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타일렀다. "이 사람이 공장에 다닌다고 하지 말고 회사에 다닌다고 하지 그랬나, 그리고 자네는 고급 기술 간부로서 때로는 야간에도 문제가 있으면 부하들을 지휘하여 해결하는 중임을 맡은 사람이라고 말하게"라고. 회사에 근무하면, 즉 책상에 앉아서 사무를 보면 인정을 받고 공장에서 서서 일하면 왕따를 당하는 사회에서는 결코 고도의 산업 사회로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주변에는 고시(考試)학원이 즐비하고 스탠포드대학 주변에는 실리온벨리가 있다고 하지 않던가.

셋째는, 사회지도층의 솔선한 개역(INNOVATION)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으로부터 120여년 전 일본의 정치가, 학자 등 쟁쟁한 사회지도층으로 구성된 구미사절단이

"이 내 갈 길 저기 하늘 날이 새면 날으리라"

(공사 1기 사관 입관 50주년 축하드리면서)

강영진(8기생)

결혼 50주년을 기념하는 부부는 천명 중에 한 쌍 정도도 안될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의 젊은이들이 결혼하여 50주년을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50년의 삶이라는 과정 속에서 감상이 다섯 번 변화하도록 아름답게 살아오신 공사 1기 선배님들에게 진심으로 찬사를 드립니다.

1기 선배님들은 공사에 입학한 저희 8기 사관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었습니다.

"이 내 갈 길 저기 하늘 날이 새면 날으리라"를 처음으로 배우던 시절 어떻게 하면 선배님들처럼 될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가꾸고 길면서 어려운 사관 생도시절을 참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입관 후에는 어디에 가나 선배님들의 발자취가 있어서, 그 발자취를 보고 배우며 따라왔습니다.

이제 저희들 입관 41주년을 보내면서 이제는 선배님들처럼 50주년 행사를 할 수 있는 후배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내 갈 길 저기 하늘 날이 새면 날으리라"의 의미를 "이 내 갈 길 저기 선배님들의 발자취 내일이면 따라가리라"로 바꿔 부르면서 1기 선배님들의 뒤를 따라가렵니다.

자랑스러운 1기 선배님들 길이길이 오래오래 저희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만수무강(萬壽無疆)을 기원합니다.

祝

**1期士官 50週年
卒業 및 任官**

(株)日野 HI-TECH

代表理事 金道植(공사8기)

산업의 기초부품인 금형, 플라스틱
사출 제품을 세계 TOP 수준

- ISO9002, QS9000, 100ppm, U.L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9-3번지
TEL : (032)815-3500, FAX : (032)815-3509

장장 22개월 간 12개국의 견학을 마치고 돌아와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지향하며 공대를 설립하여 귀족과 사회지도층 자녀들을 그 공대에 숭선하여 입학시켰던 일을 삼기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만 해도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사회에서 귀족인 자신들의 자녀를 공대로 보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귀족과 사회지도층이 숭선하니 일반인들은 자연스럽게 공대(工大)를 졸업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사회 전체의 방향이 전환되고 그것이

오늘날 일본의 산업화의 기초가 되었음을 삼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개혁은 지도층 인사들의 숭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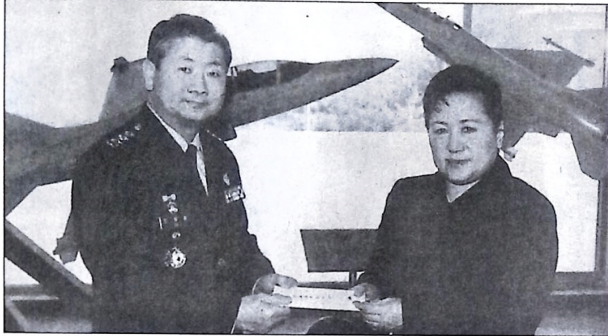
급변하는 IT시대는 자발적인 중소기업의 부품개발 활성화와 고도의 기술, 기능, 기법의 축적을 쌓아 대응력을 갖지 않으면 수입에만 의존하게 되고 결국은 어려운 국면을 맞이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어느 예비역 장군의 끈끈한 모교사랑

故 김규림 장군, 空士 발전기금 기탁

한 예비역 공군 장군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후배들에 대한 사랑이 주위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감동의 주인공은 지난달 1월 21일 지병인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 김규림(60, 공사 12기) 예비역 준장.



“조국의 큰 사람이 돼 주기 바란다” 임종시 유언... 참 공군인상 귀감

김 장군은 임종시 “후배 생도들이 부디 조국의 큰 사람이 돼 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2,000만원을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김 장군의 유언에 따라 미망인 김유진(57) 여사는 지난 2월 6일 공군복지근무지원단을 찾아 공사 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인 오필환(48, 공사 23기) 대령에게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처럼 김 장군은 유명을 달리하는 순간까지 모교와 후배에 대한 깊은 사랑을 실천하는 참 공군인상을 보여줘 공사 동문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96년 공사 교육진흥재단이 창립되고 동문들로부터 발전기금이 채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김 장군은 투병 중이던 올해 초까지도 “모교를 방문해 직접 발전기금을 기탁하겠다”는 뜻을 비취 왔다. 공사는 김 장군이 기탁한 성금을 사관생도 및 교수 요원들의 자질향상과 교육시설 및 체제 발전사업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 장군은 지난 '60년 공사 12기로 4년간 축구 대표선수로 3사 체전에서 맹활약하는 등 모범적인 생도 생활을 통해 동기생 및 선후배들로부터 두터운 사랑을 받았다.

그는 지난 '91년 공군 보안부대장(현 기무부대장)으로 전역하는 순간까지 존경받는 지휘관이었으며, 공군과 모교인 공사에 대한식을 잘 모르는 사람을 볼태웠던 진정한 공사인이었다.

태산도 티끌이 모아져서

아무리 큰 태산이라도 한 티끌 한 티끌이 모아져서 이루어짐은 만고의 진리이다. 공사 교육진흥재단에서는 국민카드사, 외환카드사에 제휴를 맺고 공군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공사 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 대령 오필환(공사 23기)에게 연락(☎043) 290-5916/7, 6050)바라며, 우선 가입하면 건당 2,000원과 각자 월간 사용금액의 1%가 우수생도 육성기금으로 자동 적립된다고 하니 작지만 모교사랑의 길이 열린 셈이다. 어찌 동참하지 않으리(작성하신 신청서는 직접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 각 카드사 주소

- 교육진흥재단 :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사서함 335-1호 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 대령
- 국민카드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43-5호 국민카드 청주지점 민천기 대리
- 외환카드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번지 성원빌딩 15층 외환카드 선릉역 지점 김선숙

힘찬 발걸음이 되기를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세월이 흘러 5년 단기 복무를 마치고 힘찬한 세파에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은 동문들이 있으니 11명의 44기 전역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선배 동문들의 따뜻한 조언과 보살핌이 있었으면 더할 바함이 없겠다.

그들의 앞날에 가호·가피가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 | | | |
|--------|--------|--------|
| 대위 김승찬 | 대위 유달산 | 대위 이희찬 |
| 대위 공병창 | 대위 권기현 | 대위 김광섭 |
| 대위 박영재 | 대위 양운세 | 대위 김은성 |
| 대위 유태현 | 대위 김인권 | |

참모총장 최초의 국산 훈련기 KT-1 직접 탑승

- 훈련 조종사의 정규 비행훈련 입과에 앞서 직접 최종 점검
- 비행교관과 훈련 조종사들의 사기 크게 높여
- 최초 국산 훈련기 KT-1 공신력 제고에도 기여

- 李億秀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1월 31일 순수 국내 자체기술로 생산한 KT-1 훈련기에 직접 탑승하여 성능 및 안전성을 최종 점검하여 지휘비행을 실시하였다.
- 공군 제3훈련비행단 217비행교육대대에서 KT-1을 이용한 첫 정규 비행 교육입과를 앞두고 공군의 수장이 직접 나서 사전 점검 및 지휘비행을 실시하는 등 숭선을 보여 비행교관과 훈련조종사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국내·외에 국산 항공기의 공신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비행에서 李億秀 공군참모총장 KT-1의 탑승 전 사전점검뿐만 아니라 전방식에 직접 탑승하여 LAZY-8(8자형 비행) CHANDELLES(상승방향전환) 등 기본기동뿐만 아니라 A-ROLL(기체회전), B-ROLL(원통형 회전), IMMELMAN TURN(급수직 상승 180° 방향전환) 등 특수기동과 고도의 비행테크닉을 요구하는 STALL(실속), SPIN(정상스핀, 배면스핀), SANP-ROLL(급회전) 등 에어쇼를 방불케 하는 고난도 기동을 직접 보여주고 공군 특수비행 팀인 블랙이글 출신의 면모와 관록을 보여주었다.
- 李億秀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탑승의 계기를 “후배들을 교육시킬 항기를 내가 먼저 점검하고 직접 조종해 보기로 했다”고 밝히고 “우리 힘으로 만든 국산 훈련기로 자식과 같은 후배 장교들이 비행 교육훈련을 받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며 이날 지휘비행의 소감을 피력했다.



“祝”

1期士官 卒業 및 任官 50週年



★★ 어린이 미래를 생각하는 열린 교육의 현장 ★★

관인 삼성유치원

이사장 조 현 호(공사8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0번지
☎ 031-706-3480 / 707-8995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0. 7. 1. ~ '01. 3. 31.)

기수	성명	금액
4기	· 서동열	20만원
5기	· 이병직	10만원
8기	· 유상신 총동창회 회장	1,000만원
	· 이양호	300만원
	· 서진태, 조현호(200만원씩)	400만원
	· 100만원씩 10명 강재학, 김덕영, 김도식, 김상록, 백상희, 우홍기, 윤석문, 임형백, 전순배, 최홍범	1,000만원
	· 50만원씩 9명 김원술, 김종석, 문명기, 신재익, 오세덕, 이남규, 장정효, 정승채, 조승래	450만원
	· 30만원씩 7명 강기석, 오대기, 유창근, 윤대봉, 임승무, 임창수, 전석근	210만원
8기	· 20만원씩 2명 김동철, 이상진	40만원
	· 10만원씩 10명 김두선, 김성규, 김성환, 송재선, 안영균, 이길주, 이병희, 정우신 남창희(고 남영찬 회원의 장남), 이승훈(고 이완희 회원의 장남)	100만원
합 계		3,530만원

※ 광고협찬

성명(기수)	회사명	금액
허두기(7기)	Pratt & Whitney	100만원
김도식(8기)	(주)일야산업	50만원
백상희(8기)	(주)한도유통	30만원
조현호(8기)	삼성유치원	50만원
최홍범(8기)	베델물산(주)	120만원
이 구 목	웨딩홀하니	100만원

會 員 動 靜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기수	성명	주소	전화번호
1	이주표	서울시 관악구 봉천3동 권악 현대(아) 112-1501	872-9978
1	이희근	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함신15차(아) 45-501	798-4942
3	최동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6 샘마을 우방(아) 503-901	031-429-2496
5	이현규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한빛(아) 135-503	042-861-5289
7	김태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21 무지개마을 청구(아) 505-1801	031-711-1240
10	임승욱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1동 325 신동아리버파트 702-603	815-5984
12	배알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리 488 수지2차 쉼(아) 204-104	031-261-7386
13	지창수	HomePage : www.youngprice.com	
21	최원택	경기도 양주군 화전을 고압리 121-2 주원마을 주공(아) 214-1206	031-857-3224
25	김진택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94-1 삼성아파트상가 207호	2637-2431
30	채중욱	서울시 양천구 신철1동 록동(아) 1017-1503	2648-1892

화 혼

- ♥ 이남규(8기)의 차남 의석(군) : 1월 20일
 - ♥ 한영석(11기)의 아들 : 3월 3일
 - ♥ 김여곤(7기)의 장남 유현(군) : 3월 10일
 - ♥ (故)최학조(8기)의 장남 인근(군) : 3월 17일
 - ♥ 이양호(8기)의 차녀 정민(양) : 3월 23일
- ※ 자녀 결혼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정보 및 회보에 게재하여 다같이 축하하겠습니다.
동기생의 주소로 청천장 우송도 대행해 드립니다.


♥ 축하합니다 ♥

부 음

- ㉠ 유지환(2기) 별세, 삼성서울병원 : 12월 17일
- ㉡ 김규림(12기) 별세 : 1월 21일
- ㉢ 박종백(2기)부인 별세, 동수원병원 : 1월 31일
- ㉣ 이윤식(11기) 별세, 수원 아주대병원 : 2월 2일
- ㉤ 이기현(13기)부친 별세, 여수 성신병원 : 2월 18일
- ㉥ 김동호(2기)모친 별세, 대전 성심장례식장 : 3월 7일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세계 모든 F-15전투기에 P&W 엔진만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F-15기에서 검증된 유일한 엔진"



실전에서의 검증
비행시간 10,000,000시간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사용중인 엔진

F-15전투기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는 Pratt & Whitney의 엔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P&W아말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Pratt & Whitney = 완벽한 전비 태세

Pratt & Whitney
A Turbo Technologies Company
www.pratt-whitney.com

(續) 못다한 하늘사랑(遊天戲海)



공시증등창회 사무총장 윤석민(공사8기)

강화 보문사는 유명한 관광지라 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더구나 영험이 있는 기도처라고 불교신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불교신자라면 더욱더 찾는다.

보문사를 가려면 강화 시내를 거쳐 의포리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짧은 바다를 건너 석모도에 들어가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하더라도 차도 타고 배도 타는 곳이다.

수속을 밟아놓고 배가 출항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바닷가 갯벌이나 배 주변에는 수많은 바닷갈매기들이 한가로이 없어서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노니는 광경을 쉽게 접한다.

출항시간이 되어 손님들이 승선을 하고 배가 시동소리를 요란스럽게 내면 바닷갈매기들은 슬렁대며 분주히 날기를 시작한다.

Seagull a Story」였는데 갈매기의 꿈이란 이름으로 번역되었으며, 리처드 바크라는 미국인의 저서였다. 저자 리처드 바크는 일리노이주 오크파크 태생으로서 1936년 생이니 나와는 동년배의 사람이다. 더구나 공군 조종사였으며 1958년부터 자유 기고가로서 비행 잡지의 편집 일에 종사하던 중 베를린의 위기시에는 공군에 재소집되어 프랑스에서 1년 동안이나 복무하였고 3,000여 시간의 비행기록 소유자였던 것이 나로 하여금 더욱 흥미를 가지고 책을 읽게 하기도 하였다.

「해변으로부터 바다를 1마일쯤 나간 곳에 고기잡이 배 한 척이 바닷물과 속삭이듯이 떠 있었고 조반(朝飯)모임의 알람이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 떼 사이에 재빨리 퍼져 나갔다.

비행안전의 날에는 일체의 비행을 중지하고 조종사들은 비상·정상 비행절차는 물론 각종 사례연구(Case Study)를 하게 하고 정비사나 지상요원들도 항공기는 물론 모든 장비점검 및 사례연구를 하게 하고 남은 시간에는 운동을 한다든지, 집체활동을 통하여 전장병의 화합을 도모케 하고 사기를 진작시킨 결과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즉시 Y참모총장님께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건의를 드려 비행안전의 날을 설정 운영하게 되었다. 비행안전의 날을 설정 운영하게 된 취지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총장님의 훈시문을 VTR에 담고 그 밖의 안전교육자료를 준비하여 전 장병에 대한 전 기지 순회교육을 하였다.

들 읽으면서 소설의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 씨결과 연계를 짓게 되었다. 언젠가부터 나도 갈매기의 꿈이란 소설을 기회가 될 때 마다 일독을 권유하게 되었고 화제로 삼기에 이르렀다. 아이들이 던져주는 새우깡이나 파자부스거리에 연연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하늘을 알차고 멋지게 비상하며 하늘에 사는 사람이 되리라. 갈매기 조나단처럼 이상(하늘)을 추구하는 한 마리의 갈매기가 되리라.

어른이나 아이들이 뱃전 난간에 나와 달려드는 갈매기들을 향하여 새우깡 등·파자 부스거리를 던져 줄라치면 그것을 받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꼴들은 과히 장관이다. 어떤 높은 바닷물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먹기도 하고, 또 어떤 높은 바닷물에 떨어진 것을 잡수하여 주워 먹기도 한다. 그러다가 손에 든 파자부스가 바닥이 나거나 아이들이 시큰둥해져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으면 그래도 손에 잡힐 듯 손에 잡힐 듯 배전을 맴돌며 바다를 다 건너 배가 선착장에 닿을 때까지 바닷갈매기들은 줄줄 따라온다. 배가 멈춰서면 바닷가 주변이나 갯벌에 앉아서 다음 배가 회항하기만을 기다린다. 그들에게는 바다 멀리 나가서 고기를 잡아먹는다는 건지 하는 일파는 답을 쌓고 사는 것만 같다.

벌써 여러 해 전이다. P라는 지인(知人)의 소개로, 소개라기보다는 권유가 있어서 갈매기의 꿈이라는 번역된 소설을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다. 일독을 권유하면서 미국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소설이 판매부수로 보나 지금까지의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책은 근간에 나왔지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훨씬 능가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날로 서점에 들러 구입해서 탐독을 하였다. 소설의 원명은 「Jonathan Livingston

드디어 수백 마리의 갈매기 떼가 이리저리 날으며 먹이를 얻기 위해 싸웠다. 오늘도 또 살기 위한 바쁜 하루가 시작된다.

그러나 멀리, 어선과 해변의 저쪽에 혼자 돌떨어져서 조나단 리빙스턴 씨결은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되면서 소설의 주인공인 조나단 리빙스턴이란 바닷갈매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도 진정한 자아를 찾고 각자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온 나는 살아온 세월들, 남은 여생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나는 어느 쪽이었던가. 소설 속 주인공인 조나단 리빙스턴 쪽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오래 전 고인이 되신 J장군님이 떠올랐다. 나는 공군본부 감찰감실 비행안전과장으로서 공군의 안전관리 업무를 1년여 담당하였었다. 사고예방장치, 안전교육자료를 수집하던 중 미 공군 안전잡지 속에서 바로 이거다 하는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구주(歐洲)공군이 F-104를 도입 운영 중에 있었는데 초기로서 비행사고가 너무 많이 나타나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비행안전의 날(Safety Day)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순회 중 현 제8전투비행단에 들렀을 때의 일이다. 격납고에 전 장병이 집합된 가운데 교육을 마치고 단장실에 들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J장군께서 운대령 수고 많이 하고 다니는데 좋은 선물을 하나 주어야지 하면서 알려내더니 자기 캐비닛에서 큰 봉투 하나를 꺼내 주면서 내용을 꺼내 보라 한다. 봉투를 열어 끄집어 내어 보니 짐승스레 쓴 붓글씨 한쪽이었다. 그 분은 서예도 조예가 깊었고 동료인 협회에도 가입하여 짬짬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 익히 알고 있던 터였다. 글의 내용이 유전희해(遊天戲海)였다. 우리 조종사들에게 아주 합당하고 좋은 말이라는 설명과 함께 하늘에 노닐고 바다를 회롱한다 라는 뜻풀이가 지 해주었다. 그때 나는 그저 좋은 글이고 내용이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와 책꽂이 서랍에 넣어둔 채 까맣게 잊고 세월만 보냈다.

갈매기의 꿈이란 소설을 읽던 중 문득 생각이 떠올라 찾아보니 서랍 속에 봉투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세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 고맙고 반가울 수가 없었다. 나는 표구를 하여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놓고 아침저녁 바라보면서 그 글의 뜻을 음미하게 되었고, 소설을 거

얻어먹을 거리를 찾아 고깃배 주변이나 맴돌며 떠나지 못하는 수백 수천의 갈매기 떼들과 달리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가장 높이가 감 빠르게 날아보겠다는 꿈의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부단하게 연습을 연습을 거듭하고 있는 소설 속의 주인공 같은 제2, 제3의 조나단 리빙스턴 씨결이 있으리라 여진다.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이 문득 들곤 한다. 내게도 무슨 행운이 있었기에 공군사관학교에 입교를 하게 되었고, 공군 조종사가 되어 5,000여의 비행시간을 기록할 수 있었는가. 그때는 비록 모르고 지나쳤지만 초염불, 늦가을의 조조 박모 비행, 위염청 달 밝은 밤의 야간비행, 하늘 바다 상공의 잠거리 비행, 속이 후련하도록 비행운(Contrail)을 파란하늘에다 내뿜던 고공비행 등... 이런 것들이 모두 유전희해(遊天戲海)였으리라.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하늘을 알차고 멋지게 비상하며 하늘에 사는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갈매기 조나단처럼 이상(하늘)을 추구하는 한 마리의 갈매기가 되리라.

눈을 감으면 기억에 남은 비행 장면들이 영상화되어 떠오르는 중에 홀로 유유자적하는 조나단 리빙스턴 씨결이라는 바다 갈매기가 요즘에는 자주 자주 떠오르곤 한다.

◇ 회비납입안내 ◇

회원회비 : 기본회비/평생회비

- 10만원(1회 납입으로 종료)

기별/임원회비(회기별)

- 회기(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 1기~7기 : 기별 40만원 또는 임원부담
- 8기~28기 : 기별 60만원 또는 임원부담

찬조금/광고협조

- 회원이면 누구나

안 내

- 국민은행 : 285-01-0075-673(예금주 : 윤석민)
- 조흥은행 : 372-01-046167(예금주 : 전춘우)

송금시 유의사항

- 입금시 기수, 성명, 납입구분(평생회비/기별/임원회비, 기타)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누 구나 납입해야 할 평생회비 술선하여 납부하고,

언 제라도 납입해야 할 평생회비 지금 당장 납부하며,

이 왕에 납입해야 할 평생회비 기거이 납부한다.

장렬히 산화한 (故)임택순 전우



이 배 선 (공사1기)

휴전이 가까워짐에 따라 아군의 육군에 대한 엄호작전의 횟수가 증가되었다. 미 5공군 작전부로부터 지상 공격 목표가 대개 24시간 전에 하달되면 그날 아침에는 오늘 있을 작전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있고 편대장에 의한 출격 전 브리핑이 뒤따르게 된다.

먼저 출전에 모 기지를 둔 모 스키로(모기가 우는 소리와 흡사한 항공기 엔진 소리를 내서 갖게 된 별명)라는 별명을 가진 T-6형 정찰 항공기가 목표물을 사전 파악한다. 이어서 적지상공을 순회하는 공격편대에 무전 교신으로 자세한 목표물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가르쳐 준다. 정찰기에 장착한 SMOKE탄이 발사되고 탄착점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 몇 미터에 있는 것이 목표물"이라는 방식으로 보충 설명을 하게 된다.

사실 완전히 은폐되어 있는 적의 지상 목표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적의 목표물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된 후 전투기는 공격을 개시하고 그 전과에 대해서도 무전으로 통보하여 준다.

지상군 엄호작전은 대개 1개 편대 4대의 P-51전투기로 구성되며 2번기는 편대장의 지시를 받고 4번기는 분대장의 지시를 받으나 종합적인 지휘는 편대장이 하게 된다.

전투경험에 따라 2번기에서 4번기로 그 후 3번기로 그리고 3번기에서 편대장 순으로 순격하게 된다.

G-CLASS 공사 1기생 출신 조종 훈련반은 부족한 조종사의 보충과 작전량의 증가로 훈련도중 A, B반으로 구분되어 A반은 B반보다 약 3개월 정도 빨리 훈련을 마치고 강릉기지에 배속되어 전투에 임하였다.

사고 당일, G-CLASS B반에 속해 출격 중이던 임택순 중위는 2번기 본인은 3번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인의 36회째 출격이었고 임 중위는 15회째의 출격으로 기억되는 1953년 3월 6일, 출격의 목표지점은 DT423756인 동해안 고성 북쪽지역으로 아군 지상군의 엄호작전이었고 목표의 종류는 포대(MOTER POSITION)이었다.

그날도 목표지점을 확인한 후 우리편대는 폭탄 공격을 시작하였다. 공격에 참고되는 사항을 무전으로 계속 제공을 받으면서

2번기 임 중위의 공격이 끝나고 3번기인 내가 공격개시, 날개 끝이 목표점을 통과한 2~3초 후, 90도의 급강하 선회로서 목표에 정대하고 조준을 계속하면서 적질한 고도에 이를 때 폭탄을 떨어뜨렸다.

급강하 도중 목표 500m 미달 지점에서 폭발에 이은 큰 화염을 목격하였다.

그 당시 판단오른 순간 다른 숨겨진 목표, 즉 탄약저장소 같은 것에 폭탄이 우연히 명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공격 이탈 후 본인이 2번기 위치에 있음을 발견했을 때, 순간 알 비행기를 놓쳐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로켓 공격에 이어 4~5회에 걸친 기총사격을 끝으로 공격이 끝나고 기지로 귀환하기 위해 집합을 했을 때, 비행기는 모두 3대뿐인데 내가 보이지 않았다. 편대장이 무전으로 확인하였으나, 임 중위가 탄 2번기로부터의 응답은 없었다. 순간 불길한 느낌이 나의 뇌리를 스쳤다.

내가 폭탄 투하 진입시에 있었던 폭발화염이 육시 적 대공 포화에 의해 추락된 임 중위의 항공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4번기를 대기시키고, 임 중위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편대장과 본인이 공격지점 부근으로 향했다.

임 중위에 대한 걱정으로 위험도 있는 체 초저공비행을 감행하였다. 그때 우리는 산산조각난 항공기의 잔해와 태극기 마크가 선명한 비행기 동체의 잔해가 아직도 화염에 싸여 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순간 나의 심장은 격렬히 뛰었고, 나의 손과 발은 떨리며 경직되었다.

적 대공사격에 피탄되어 산화한 동기생 전우를 목격한 순간인 것이었다.

임 중위는 폭탄투하를 위해 급강하하는 순간 적의 대공사격에 의해 전사된 것이었다.

나의 동기생 임택순 중위!

그는 "따충"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온화하면서도 순진하고, 어눌한 말솜씨로 가끔씩 우리를 웃겼던 유머를 가졌고, 훈련이 끝나고 출격 전 휴가에서 만난 사랑하는 애인에 대한 자랑도 늘어놓았던 그의 생존의 모습이 떠올랐다.

기지로 귀환하며 전사한 그의 유골을 정리할 때의 그 비통함과 애절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고, 앞으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었다. 계속되는 동족살상의 처절한 싸움, 전우의 희생을 위로하고 본인은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게 맡겨진 임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는 다짐을 굳게 하게 되었다.

얼마 전에 나는 50년이 지나 이제는 퇴색이 된 나의 출격일지를 넘기다가, 1953년 3월 6일 바로 임택순 중위가 전사한 그날에 썼던 기록을 보게 되었다.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다. 흥

분하고 비통하여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발이 떨려 어떻게 착륙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비상시의 침착성이 매우 부족한 점을 발견하며 생각할 바가 많다" 나는 이렇게 그날의 비통함과 나의 비행 미수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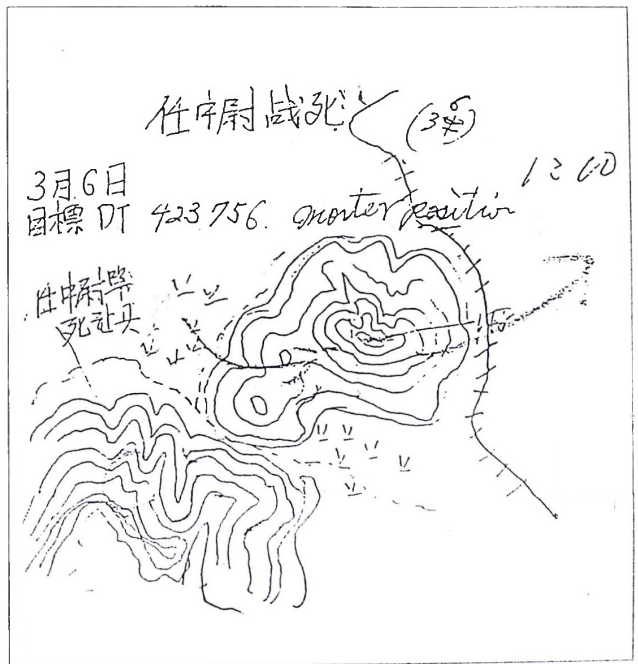
몇 년 전 본인은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곳 정문 입구에 세워진 고 임택순 대위의 동상이 눈에 띄었다. 철두철미한 책임감

과 감투정신 그리고 회생정신 등 그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모범과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로서 전투에서 첫 번째로 전사한 동료 임택순!...

긴장된 전투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며 함께 출격하였던 전우, 그러나 그의 애기와 시신을 적지에 두고 홀로 돌아왔을 때의 그 비통한 심정이 다시 되살아나서 나는 눈시울이 붉어짐을 느끼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임택순 대위 동상(공군사관학교 1960. 3. 19.)



도표설명 : 필자가 쓴 출격일지의 사본임

1기 사관 50주년 행사

일 시 : 2001년 5월 17일

장 소 : 공군사관학교/제19전투비행단

平生會費 納付者 名單 (01. 3. 23. 現在)

기수	현재	납부	%	납 부 자 명 단
1	36	36	100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79	79	100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83	46	55	고승만, 고재원, 공사연, 김경복, 김규홍, 김동호, 김병기, 김삼용, 김성하, 김인기, 김진섭, 김진환, 박석현, 박영호, 박영주, 백낙승, 백정석, 손철영, 심장섭, 소명옥, 손호인, 양희재, 엄용식, 윤경환, 윤배옥, 윤봉섭, 이경영, 이만섭, 이명완, 이상운, 이상복, 이원재, 이인행, 이종학, 이학수, 이형복, 장동준, 전복규, 전승우, 정규혁, 정진섭, 조박현, 조봉형, 조소하, 지경근, 최항기
4	65	38	58	구자춘, 김석용, 김용주, 김환중, 박승준, 박예재, 박오화, 박용진, 박재진, 박차식, 서동열, 신동만, 안우일, 양승문, 오수근, 유동천, 이래식, 이순요, 이시우, 이조한, 장남춘, 장무익, 정구현, 정낙영, 정봉규, 정봉현, 정연봉, 정진모, 조정래, 조봉구, 조욱찬, 최세천, 최준식, 한영규, 홍사학, 홍의태, 홍재하, 황규복
5	104	56	54	강원신, 고경달, 권오인, 김종인, 김상곤, 김성근, 김성일, 김옥배, 김희남, 김홍규, 나병순, 문창수, 박병구, 박석환, 박석환, 박용직, 박용태, 박종희, 박중식, 박정배, 배경태, 백수현, 성보경, 손민희, 신봉림, 송용근, 안석기, 여태현, 유철중, 윤춘현, 이흥식, 이병직, 이윤모, 이원순, 이원진, 이준수, 이춘일, 임종배, 임희용, 장기현, 장재명, 전운수, 정병주, 정봉수, 정순갑, 정재식, 차순도, 최찬정, 최홍선, 한정근, 함관순, 함태삼, 허광선, 황교찬
6	48	48	100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59	62	105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53	53	100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	45	30	66	강민수, 고은택, 고인규, 권혁달, 김광순, 김명수, 김상태, 김 열, 문영복, 민대식, 박종권, 백봉중, 서용택, 서철수, 이강홍, 이기봉, 이재을, 이준호, 이영락, 이용세, 이원호, 신도범, 임병선, 정원호, 채기권, 천원봉, 최일영, 한광희, 한동열, 함종우, 강위훈, 권영락, 김광영, 김병태, 김상해, 김승호, 김시호, 김재수, 김용제, 김용주, 김중선, 김재석, 김태석, 김한용, 김홍래, 문성근, 박근영, 박복찬, 백대선, 백승용, 서진규, 선종호, 성수환, 송중호, 송철수, 이강주, 이달화, 이두훈, 이병태, 이봉중, 이수갑, 이수길, 이영우, 이은봉, 이창호, 이재병, 이현재, 임승욱, 최원철, 한정복, 홍동식, 홍성우, 황봉석
11	50	52	104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	42	33	79	강영식, 김규림, 김문수, 김영식, 김영용, 김원인, 김태규, 나광수, 남동현, 민합식, 박덕희, 박상철, 박원규, 박창길, 박준택, 배기춘, 배양일, 신동운, 심재운, 안봉열, 우대식, 우정수, 이명환, 이상경, 이상순, 이종득, 이종양, 이홍우, 전대우, 정민남, 정관중, 최대식, 홍종건
13	52	33	63	권희본, 강신해, 고병준, 박갑순, 김양수, 김종식, 김진삼, 김진석, 김준연, 문기철, 민양식, 손덕규, 안병하, 안병철, 유근우, 유병각, 윤재명, 이기현, 이병길, 이승대, 이정호, 이종대, 이종화, 이태규, 이희관, 장덕수, 정해성, 지창수, 조건환, 최길용, 최인일, 최종태, 태종민
14	50	50	100	완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	50	27	54	권기동, 김대욱, 김덕훈, 김석호, 김성덕, 김주식, 김평탈, 명정수, 박득규, 박영남, 박오상, 박종걸, 배양중, 손영철, 신길수, 안위공, 양승묵, 임익준, 오상현, 이강섭, 이길환, 이호재, 임용원, 조국현, 최광섭, 최성렬, 최용환
16	55	25	45	강철수, 김문기, 김성규, 김신홍, 김의림, 김현식, 박성국, 박영용, 박영훈, 배정영, 백종기, 서요창, 오창모, 이선기, 이성우, 이수훈, 이재기, 장진수, 임정빈, 전광남, 정해정, 주창성, 최홍철, 최명상, 최양용
17	60	28	47	강희간, 고영섭, 고종무, 김석우, 김운태, 김용수, 김익창, 김재수, 김중현, 김준수, 박용택, 배종수, 서정용, 안광수, 어수연, 유정용, 윤병인, 이문호, 이성용, 이한호, 이철휘, 전영배, 장삼용, 장호근, 조규식, 차욱환, 한영택, 황창번
18	71	35	49	곽조취, 강재필, 고정훈, 구정화, 곽은용, 김두연, 김종식, 김재수, 김재운, 김진철, 김태근, 김연규, 신명호, 석현수, 손인익, 송희전, 신표근, 염이용, 오병환, 오환근, 윤관중, 이기택, 이봉길, 이선희, 이영준, 이정목, 이태섭, 이하진, 장영수, 전영훈, 정원태, 최태호, 천기광, 허 한
19	44	20	45	김덕실, 김명립, 김영철, 김정진, 박 열, 서경수, 손영수, 손정환, 유병규, 유병권, 윤정채, 이균신, 이강욱, 이계오, 이규찬, 이할호, 이성용, 이영순, 정성진, 지광식
20	107	10		김오비, 김우식, 김정기, 이정학, 이영원, 장성문, 조태연, 차종권, 한길성, 허원욱
21	97	14		금기연, 금영수, 김상인, 김영배, 김연화, 김태우, 명철원, 박경석, 성봉환, 송동근, 이수남, 정용용, 조오현, 홍종백
22	96	13		김수준, 김은기, 남백우, 윤여동, 이광희, 이경환, 이영하, 이용익, 이정석, 장현섭, 홍재근, 최병운, 최승열
23	109	6		김수환, 이은수, 윤자영, 박종철, 장석원, 정경모
24	130	12		공윤석, 신진섭, 송기백, 안창수, 안빈용, 열경식, 이일중, 이영중, 이재강, 전남채, 주신희, 최종용
25	124	13		구도권, 김진태, 김종홍, 김정렬, 류홍규, 박우성, 박준한, 손명환, 임우규, 윤양로, 윤용영, 이성재, 최승규
26	123	1		최병화
27	125	8		고덕규, 김만호, 김용상, 남은우, 박관권, 손태용, 최동환, 홍성은
28	122	2		신영덕, 최상일
29	141	28		김경호, 김석중, 김성진, 김영권, 김영철, 김원규, 김철생, 나홍렬, 박성기, 백승욱, 송창석, 심동환, 심재관, 오승균, 오영봉, 오한두, 윤주영, 이규복, 이병두, 이완식, 이일수, 이창근, 정남범, 최상철, 최승철, 공상기, 홍승조, 홍재욱
30	151	6		강성호, 김원규, 김용환, 김진환, 장덕진, 제종묵
31	166	1		조환기
32	168	0		
33	173	3		유준중, 이재홍, 정희주
34	167	0		
35	252	0		
36	256	2		김응문, 박홍식
37	252	0		
38	232	0		
39	222	0		
40	243	0		
41	242	1		김민호
42	277	0		
43	271	0		
44	211	4		고준기, 권기범, 박세순, 이강희
45	211	0		
46	230	0		
47	201	0		
48	193	103	53	김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본근, 구필현, 금규태, 김태원, 김강주, 김경민, 김년수, 김덕중, 김만중, 김민진, 김법준, 김삼준, 김성규, 김성진, 김승현, 김시문, 김인영, 김용숙, 김우현,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한, 김태호, 김홍석, 나정훈, 남택수, 문보연, 민병여, 박경준, 박정수, 박준영, 박찬영, 박하민, 박희수, 사재철, 소명섭, 손성진, 송영권, 송영민, 신 환, 신기영, 안상철, 안효춘, 양현주, 임일용, 오상원, 원용창, 유 용, 윤경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대연, 이봉수, 이봉운, 이명선, 이우강, 이상준, 이석현, 이순재, 이우열, 이윤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재영, 이종원, 이종훈, 이찬용, 이창중, 이태승, 이영주, 이효성, 임병철, 임병호, 임수홍, 임은수, 임창순, 장관홍, 장성진, 전대만, 정기만, 정인식, 정재홍, 조정훈, 조혁준, 채 석, 천영호, 최권석, 최규완, 최성호, 최성호, 최영기, 최재호, 추광호, 한영중, 허석희, 홍문기
합		1021		※ 2월 20일에 지료용지 납입하신 분 중 성명과 기타 사항을 기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르타고의 "하니발" 장군과 사관학교

강 영 진(8기)

어렸을 때 역사를 배우면서 전쟁이야기가 나올 때면 신이 나서 들고 보고 하던 일이 생각난다.

참으로 재미있게 공부했던 카르타고의 "하니발(Hanibal BC247-BC183) 장군과 로마와의 싸움"은 흥미진진한 것이었다.

그 때에, 하니발 장군은 카르타고를 위해서 알프스를 넘는 용맹과 지혜가 있었다. 그러한 장군들의 정신은 중세에 와서 기사도(騎士道) 정신으로 이어졌다.

봉건시대의 국가를 방위하는 성곽(城郭)은 아무리 튼튼해도 정복되었다.

그러나 움직이는 성곽(城郭)인 "기사(騎士)"는 국가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기동성과 융통성이 뛰어났던 것이다.

기사는 기사들 사이에 성립한 규범의식 또는 행동양식의 이상형인 기사도(騎士道=Chivalry) 정신(精神)이라는 것이 있었다. 기사도의 덕목(德目)은 무용(武勇), 성실(誠實), 명예(名譽), 약자보호(弱者保護) 등이었다.

이러한 기사(騎士)의 정신을 이어받은 곳이 사관학교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가르치는 곳으로써, 오늘날의 기사(騎士) 양성기관이 사관학교(士官學校)다.

사관학교는 오늘날의 기사(騎士)인 사관(士官)을 배출하는 성스러운 곳이다.

1차 세계대전(世界大戰)이 끝났을 때, 미국의 국민들은 이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고,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사관학교는 없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사관학교 폐지론이 대두되고 급기야는 국회에서까지 사관학교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미국에서 사관학교는 2년제 육군사관학교뿐이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의 명장인 맥아더 장군이 준장으로서는, 육군사관학교의 교장이었다.

미국 국회에서 사관학교를 없애기 위한 청문회와 같은 여론수렴이 시작되었을 때, 맥아더

대비하기 위한 사관학교가 아니라 국가의 '스파르타 정신'의 역할을 하는 사관학교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사관학교 폐지론은 잠재되었고, 얼마가지 않아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였다.

그 후에 미국에서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가 세워졌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자유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아테네 정신'과 힘과 용기, 그리고 튼튼한 육체와 강인한 정신을 사랑하는

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은 전문화되어가로 스파르타 정신과 아테네 정신을 고루 갖춘 전인교육(全人教育)을 받은 사람이 드물게 되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극에 다다른 시대에 있어서, 무용(武勇)의 정신과 예술을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관학교의 정신은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이 혼탁한 세대는 충심을 잡게 될 것이다.

한국의 미래는 사관학교의 정신(무용(武勇), 성실(誠實), 명예(名譽), 정직(正直) 등이, 이 나라에 고루고루 퍼져 나가야만, 비로소 정직(正直)이 통하는 나라, 명예(名譽)가 존중되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다.

詩 하 늘 공 룡 李永淳(공사19기) 비행교수

당치는 억만나 큰고
영국도 볼 수 없는
성미도 가늠할 수 없는
하늘 공룡이내.

순하디 고운 머스호
대지를 샅포시 깎싸다.

아기 공룡 재충 부러듯
순덕 날리며 깎깎 웃다.

승풍 머금은 찌푸린 상으로
부직없는 눈물을 흘리다.

신기 특이해 해패부리면
뿔칼 머구 휘둥거 큰 뿔뿔 쏟아 붓고

양칼진 노기는
윤칼치고, 못깎 헤집는 한기
못깎기는 번덕쟁이아오.

하늘마당 건너등기 30여년
오늘도 하늘 날며 기운 샅퍼요.

장군은 그 미국 국회에서 육군사관학교의 교장이로서 다음과 같이 갈파하였다.

"하나의 국가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정상적인 국가의 역할을 다 하려면, 자유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아테네 정신'과 강인한 정신과 튼튼한 육체를 겸비한 '스파르타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를

'스파르타 정신'을 공유할 때 정상적인 인간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나라는 통일의 길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가 통일이 되기 전(前)이든, 통일 후(後)이든 간에 국제사회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훌륭한 국가가 되려면 "아테네 정신"과 "스파르타 정신"을 고루 갖춘, 균형을 이룬 나라가 되어

하나의 국가가 튼튼하게 자리잡고 정상적인 국가의 역할을 다 하려면 자유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아테네 정신'과 튼튼한 육체를 겸비한 '스파르타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2001年度 定期總會 召集 公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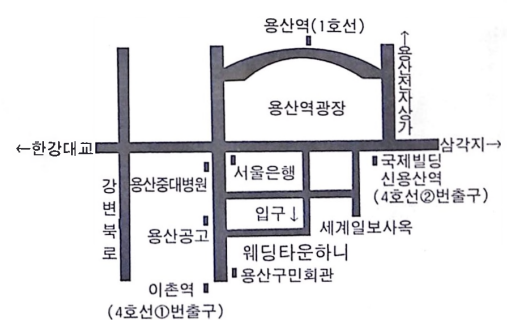
本會 會則 第13條에 依據 2001年度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 定期總會를 아래와 같이 開催하오니 全同門들께서는 公私多忙하시더라도 부디 參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日 時 : 2001年 6月 15日 18時
- 2. 場 所 : 웨딩타운하니
대회의실 ☎02-790-0053
- 3. 主要議題

- ① 第9次年度 會長 選出
- ② 第8次年度 會務報告
- ③ 會則 改定/補完 事項
- ④ 其他

※ 부득이 참석할 수 없는 임원은 필히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불참시는 위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02-823-1091, FAX 02-823-1092)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長 柳 常 新



에반스 · 서더랜드 EVANS & SUTHERLAND



미국 에반스 · 서더랜드(E&S)사는 1968년 설립 이래 32년 이상 최고 성능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영상시스템을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세계제일의 영상시스템 전문회사이며, 전세계적으로 영상시스템의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은 민항기 시뮬레이션의 70% 그리고 군용기 시뮬레이션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육 · 해 · 공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에서 E&S의 영상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E&S사는 4년 전부터 시뮬레이터 전체 시스템의 설계 · 체계통합 및 시험 평가 등 전체 시스템을 주계약자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 락 처

EVANS & SUTHERLAND

600 Komas Drive, Salt Lake City, Utah 84108
Attn : Mr. Donald P. Brown
Director, International Marketing
Tel : 801-588-1567 Fax : 801-588-4512
E-mail : donbrown@es.com

베델물산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Trade Tower 1802-1호
대표이사 오재구
항공우주사업담당사장 최홍범(8기)
Tel : (02)551-3241 Fax : (02)551-6686
E-mail : aerospace@bedell.co.kr